

# 현안과 과제

■ 수출시장으로서의 GCC 제조명  
- 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③ GCC(걸프협력회의)

## &lt; 요약 &gt;

**1. GCC 경제권의 부상**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다. GCC 가입국들은 정치·종교·문화·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동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협의체이다. 이 경제권은 한국 영토의 26배에 해당하나 인구는 80%에 불과하다. 최근 GCC경제권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성장하였고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입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다.

**2. GCC 경제 및 산업의 특징**

첫째, GCC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1.3배 수준이고 전세계 경제의 약 2.1%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07년까지 GCC를 능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역전을 허용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와서 GCC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혹은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카타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이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쿠웨이트, UAE, 바레인 등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하락하였다.

둘째,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원유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GCC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원유가격과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여 왔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조 달러의 누적 흑자액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러한 대규모의 오일머니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GCC 국가들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GCC 경제권은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출의 약 75%가 원유수출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또한 에너지 자원 덕분이다. 반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각 10%와 40%에 불과하다. GCC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하고 석유 의존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원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대규모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원유와 관련된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 3. GCC 경제권과 한국경제

**첫째,** 한국과 GCC 경제권 간의 만성적인 무역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은 GCC로부터 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전기전자·자동차·조선 등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한다. 그러나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하는 금액의 5배 이상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적자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동일기간 동안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3,000억 달러의 적자액을 훨씬 상회한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수출을 중시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규모가 증가하면 GCC로부터의 원유 수입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 GCC간 무역불균형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둘째,** GCC 국가들은 한국 건설기업들의 최대 수주 시장이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GCC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정도에 해당한다. 한국은 GCC로부터의 건설수주를 통해 원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무역적자의 일부를 상쇄해 왔다.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로 인해 GCC 국가들의 건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건설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4. 시사점

**첫째,**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한 GCC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 증진 및 국내기업 진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GCC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정적인 수출여건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과 GCC간의 조속한 FTA 타결이 요구된다.

**둘째,** 동시에 다양한 지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자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GCC 주변지역에 잠재해 있는 민주화의 확산, 이란의 핵개발 등 다양한 불안요인을 인지하고,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GCC 국가들과의 교류를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GCC 경제권은 상호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에 비해 사회·문화적 교류는 미흡한 실정이다. GCC 경제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 1. GCC 경제권의 부상<sup>1)</sup>

### ○ (개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국가가 상호 협력을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6개 아랍국가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
  - 1970년대말~1980년대초에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이란 혁명,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립
  -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동 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협의체
- GCC 소속 국가들은 정치·종교·문화·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
  - 정치적으로 세습군주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슬람교를 믿으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 보유
- GCC 국가들의 총 면적은 한국의 약 26배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80%에 불과

<GCC 소속 국가 위치>



<GCC 소속 국가 개요2)>

가입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위치	아라비아 반도
종교/언어	이슬람교/아랍어
인구	약 3,900만명
면적	약 260만 km <sup>2</sup>
정부형태	세습 군주제
주요자원	석유,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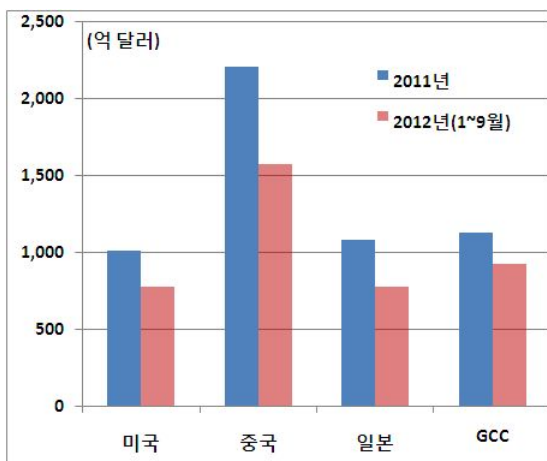
자료: CIA, IMF.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2012),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시장 발굴, 지식경제 2012 가을호.」 중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하는 중동 GCC 경제권”을 발췌한 것임

○ (중요성) GCC 경제권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교역권이고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입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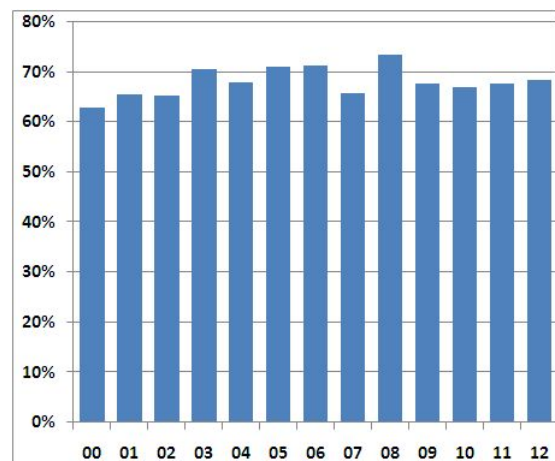
- 수출과 수입을 합한 총 교역규모 측면에서 GCC 경제권은 중국에 이은 제 2의 교역권으로 부상
  - GCC와의 무역 규모는 한국의 총 수출입 중에서 약 10.4%의 비중을 차지하여 일본(10.0%)과 미국(9.3%)을 앞서고 있음
  - 2011년 한국과 GCC 경제권과의 교역규모는 1,127억 달러에 해당하며, 중국(2,206억 달러)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교역 대상지
  - 국가별로 사우디아라비아(439억 달러), UAE(220억 달러), 카타르(212억 달러), 쿠웨이트(184억 달러), 오만(63억 달러), 바레인(9억 달러) 순서<sup>3)</sup>
  
- 한국은 GCC 경제권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한국은 필수원자재인 원유의 약 68%를 GCC 6개국들로부터 수입하여 사용
  - 세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의존도가 약 33% 비중을 차지하고 쿠웨이트(14%), 카타르(10%), UAE(10%), 오만(2%) 순서<sup>4)</sup>

<GCC 경제권과의 교역규모>



자료: KITA.

<한국의 대 GCC 원유수입 의존도>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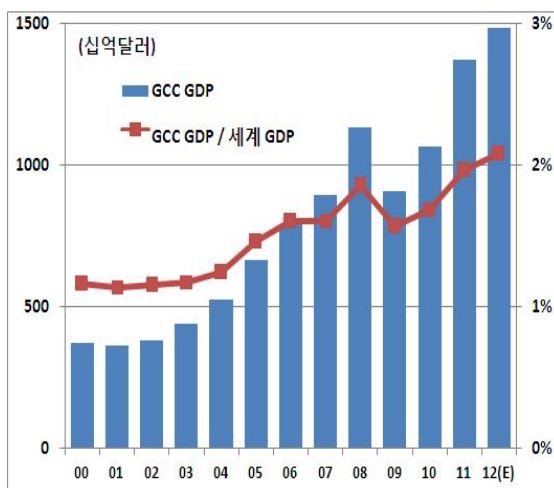
2) GCC 소속 개별 국가들에 대한 개요는 <별첨> 참조.  
 3) GCC 소속 개별 국가들과의 교역규모는 <별첨> 참조.  
 4) GCC 소속 개별 국가로부터의 원유수입 규모는 <별첨> 참조.

## 2. GCC 경제 및 산업 구조의 특징

### ○ 2012년 명목 GDP 기준으로 GCC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1.3배 수준

- GCC의 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추정치)으로 14,846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의 GDP (11,513억 달러)보다 약 29% 정도 큰 수준
  - 2007년까지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GCC의 규모를 능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역전 허용
  - GCC의 명목 GDP는 2000~2012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계 경제규모의 약 2.1%를 차지(한국은 약 1.6% 비중)
- 2000년 이후 GCC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이나 세계 전체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 카타르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수준 유지
  - 다만, 쿠웨이트, UAE, 바레인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

<GCC 경제권 명목 GDP 규모>



자료: IMF.  
주: 2012년은 추정치.

<GCC국가·한국·세계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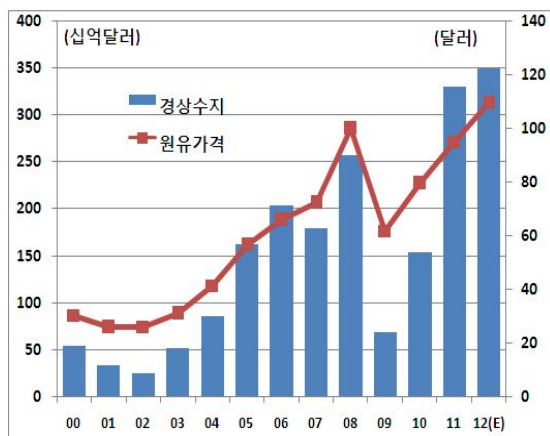
구분	연평균 경제 성장률	
	2000~2008	2009~2012
사우디아라비아	3.7%	4.5%
쿠웨이트	7.1%	2.1%
UAE	7.6%	1.4%
카타르	12.4%	12.2%
오만	5.0%	4.8%
바레인	6.3%	3.0%
한국	4.9%	3.2%
전세계	4.1%	2.9%

자료: IMF.  
주: 2012년은 추정치.

○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석유수출국인 GCC 국가들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확보**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GCC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는 원유가격과 유사한 패턴 형성
  - GCC 6개국의 2000~2011년까지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약 1조 6,000억 달러에 상당함
  - 특히 원유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2011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약 3,304억 달러) 기록  
(\*2012년 경상수지 흑자액은 2011년에 비해 6% 증가한 3,503억 달러로 추정)
- GCC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일머니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GCC 소속 국가들은 원유수출을 기반으로 형성한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해 옴
  -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
  - 그러므로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GCC 국가들은 축적된 오일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GCC 경제권 경상수지 규모>



자료: IMF, BP(2012년은 추정치).  
 주: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가격 기준.

<GCC 소속 개별 국가들의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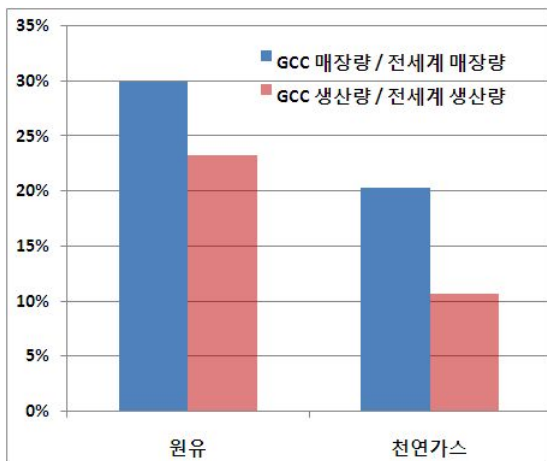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10	'11	'12(E)
사우디아라비아	668	1,585	1,713
쿠웨이트	383	708	770
UAE	91	333	336
카타르	339	524	546
오만	51	122	112
바레인	8	32	26
<b>GCC(6개국)</b>	<b>1,540</b>	<b>3,304</b>	<b>3,503</b>

자료: IMF(2012년은 추정치).

**○ GCC 국가들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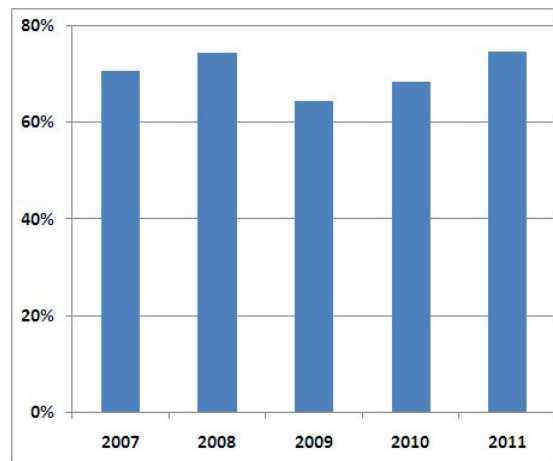
- GCC 경제권 소속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전세계 최대의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 지역에 위치
  - GCC의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은 각각 30%와 23%이며,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의 20%와 11% 차지<sup>5)</sup>
  - GCC 6개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이고, 이들 4개국의 생산량은 OPEC 전체 생산량의 53%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 GCC 소속 국가들은 원유수출이 총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의존 경제에 해당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소속 6개국은 총수출의 약 75%가 원유수출을 통해 발생
  - 총수출 중에서 원유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카타르(98%), 쿠웨이트(93%), 사우디아라비아(84%), 오만(68%), 바레인(67%), UAE(44%) 순서<sup>6)</sup>

<GCC의 원유, 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



자료: BP(2011년 기준).

<GCC 경제권 원유수출/총수출 비중>



자료: IMF, OPEC.

5) GCC 소속 개별 국가들의 원유·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은 <별첨> 참조.

6) GCC 소속 개별 국가들의 원유수출 / 총수출 비중은 <별첨> 참조.



**○ GCC 경제규모에 비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다각화 전략 실시**

-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석유 채굴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제조업(10%)이나 서비스업(40%)의 비중은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편
  - GCC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28%, 52%에 해당
  - 최근의 지속적인 유가상승은 석유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을 낮추는 결과 초래
- GCC 소속 각 국 정부는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시 중에 있음
  - 석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행 중
  - 원유나 천연가스과 관련된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육성을 위해 노력 중

<GCC 국가의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구분	산업별 비중	
	제조업	서비스업
사우디아라비아	10%	36%
쿠웨이트	5%	52%
UAE	10%	44%
카타르	11%	28%
오만	10%	48%
바레인	17%	42%
GCC(6개국)	10%	40%

자료: UN, CIA(2010년 기준).

<GCC 소속 국가별 산업다각화 정책>

국가	중점육성분야	투입예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의료, 교육, 금융, SOC, 건설자재	3,385억 달러 (2014년까지)
쿠웨이트	석유화학, 건설, SOC, 관광,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1,040억 달러 (2014년까지)
UAE	석유화학, 금속, 의료, 관광, 금융,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3,000억 달러 (2030년까지)
카타르	에너지, 교육, 금융, 관광, 정보통신	1,380억 달러 (2012년까지)
오만	SOC, 산업단지건설	370억 달러 (2015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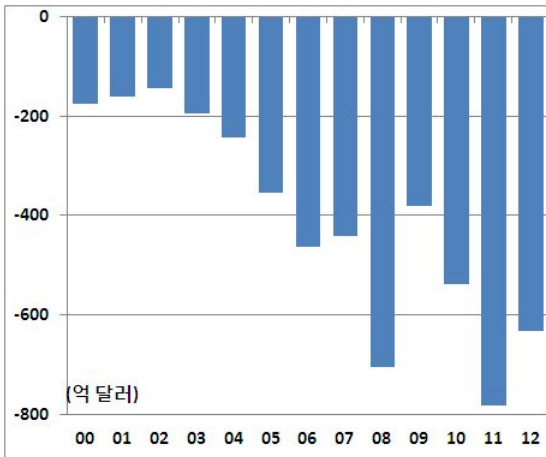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 3. GCC 경제권과 한국경제

#### ○ 한국과 GCC 경제권 간의 무역불균형(만성적 무역수지 적자) 현상 심각

- 한국의 GCC로부터 수입 규모가 GCC에 대한 수출 규모의 5배 이상
  - 한국이 GCC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수출한 규모의 약 5.5배(2011년) 수준이고 2012년(1~9월)에도 약 5.4배
  - 무역불균형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현재(2012년 9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약 5,212억 달러 규모<sup>7)</sup> (\*참고로 같은 기간 일본과의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약 3,040억 달러)
  - 원유의 수입을 GCC 국가들에 의존하는 한, 한국의 수출규모가 증가하면 GCC로부터의 수입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발생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 상품
  - 한국이 전세계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주요 제품들과 유사하게 승용차, 선박, 무선전화기 등이 상위 순위에 위치
  - 개별 국가들에 대한 수출실적(2011년)을 살펴보면, 총 173억 달러 중에서 UAE(42%), 사우디아라비아(40%), 쿠웨이트(8%)가 대부분을 차지

<대 GCC 무역수지 적자 규모>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대 GCC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0년		2011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승용차	2,402	승용차	3,395
2	선박	939	무선전화기	600
3	무선전화기	534	선박	591
4	변압기	416	건설중장비	569
5	전선	369	가열난방기	488

자료: KITA.

7) GCC 소속 개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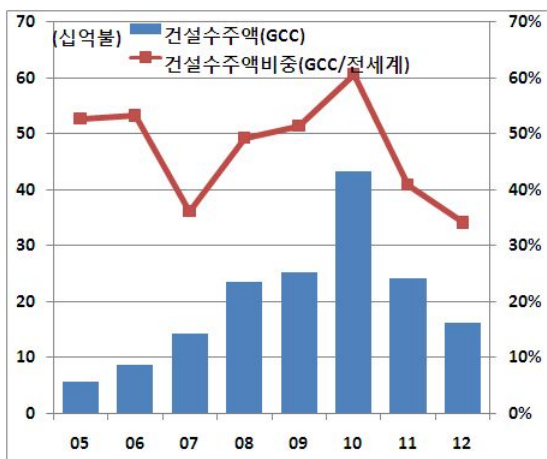
**○ GCC 국가들은 한국 건설업체들의 최대 수주 시장이며, GCC로부터의 건설 수주는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

-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GCC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수준
  - GCC로부터의 건설 수주액은 2005년 57억 달러에서 2011년 242억 달러로 연평균 23%씩 성장
  - 한국이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80% 이상이 GCC 국가들로부터 발생
  - 2011년 건설 수주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원전수주 등으로 인해 급증했던 UAE로부터의 건설 수주액이 급감하였기 때문

(\*2012년 1~10월 수주액은 161억 달러로 전년도 동기간(208억 달러)에 비해 감소)

- 한국은 GCC로부터의 해외건설 수주를 통해 원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의 일부를 상쇄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 2010년 해외건설 수주액(434억 달러)은 무역적자의 81%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2011년 수주액(242억 달러)은 무역적자의 31%에 해당하는 수준
  -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로 인해 GCC 국가들의 건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중동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건설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GCC로부터의 건설 수주액 규모>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2012년은 1~10월 기준.

<GCC 소속 국가별 건설수주 실적>

구분	건설 수주액(억 달러)		
	'10	'11	'12
사우디아라비아	105	166	109
쿠웨이트	49	16	7
UAE	256	21	29
카타르	12	15	18
오만	8	20	0.3
바레인	4	4	0.1
<b>GCC(6개국)</b>	<b>434</b>	<b>242</b>	<b>161</b>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2012년은 1~10월 기준.

#### 4. 시사점

**첫째,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한 GCC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 증진 및 국내기업 진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안정적인 수출여건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과 GCC간의 FTA 조속한 타결 필요
- GCC 국가들의 풍부한 자본력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결합하여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 가능
- GCC 국가들이 시행하는 산업다각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 국내 기업의 진출 강화

**둘째, 다양한 지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자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민주화의 확산, 이스라엘과의 분쟁, 이란의 핵개발 등 다양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인지하고,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 GCC 경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 강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구체적 조치 필요

**셋째, GCC 국가들과의 교류를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과 GCC 경제권은 상호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에 비해 사회·문화적 교류는 미흡한 실정
- GCC 경제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육성
- GCC 지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중동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제도,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별첨】 GCC 경제권 관련 諸 표**

<GCC 국가들 개황>

	단위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면적	천 km <sup>2</sup>	2,150	84	12	18	310	0.8
인구	백만명	26.1	5.1	0.8	2.6	3.0	1.2
GDP	십억달러	657	362	185	175	80	28
1인당 GDP	달러	22,823	65,377	100,378	46,142	25,152	23,027
경제 성장률	%	6.0	4.0	6.3	6.4	5.0	2.0
물가 상승률	%	4.9	0.7	2.0	4.3	3.2	0.6
경상 수지	십억달러	171.3	33.6	54.6	80.0	11.2	2.6
수도		리야드	아부다비	도하	쿠웨이트 시티	무스카트	마나마

자료: IMF(2012년 추정치 기준), CIA Factbook(2011).

<한국과 GCC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07	251.9	163.6	96.2	100.5	43.6	5.2
08	390.3	250.0	162.8	128.7	65.8	7.9
09	235.9	142.9	97.0	87.4	46.6	6.0
10	313.8	176.6	123.9	119.0	47.6	8.6
11	439.4	220.3	212.2	183.9	62.7	8.9
12	361.2	163.0	198.5	148.6	44.5	8.3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한국의 GCC 개별 국가로부터 원유수입 규모>

(단위: 억 달러)

연도 \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00	78.0	36.2	13.0	18.6	13.1
01	66.9	33.9	10.7	15.1	13.1
02	62.6	28.8	8.7	15.1	10.0
03	74.1	41.9	14.0	22.0	10.9
04	93.6	54.6	16.8	26.7	11.6
05	132.3	78.0	27.6	45.3	19.6
06	174.9	105.0	31.7	64.7	22.1
07	183.2	102.4	33.5	67.8	9.7
08	286.5	165.5	62.1	101.2	15.8
09	167.7	72.8	30.3	62.6	10.5
10	228.7	87.8	49.4	84.8	8.4
11	329.9	98.0	100.1	138.1	15.2
12	265.6	71.9	88.1	118.0	8.0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GCC 국가들의 원유/천연가스 매장량, 생산량>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원유	생산량(백만톤)	525.8	150.1	71.1	140.0	42.1	-
	매장량(십억배럴)	265.4	97.8	24.7	101.5	5.5	-
천연가스	생산량(백만톤)	89.3	46.6	132.2	11.7	23.9	11.7
	매장량(1012입방피트)	8.2	6.1	25.0	1.8	0.9	0.3

자료: BP(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Report 2012).

주: 2011년 기준.

<GCC 국가별 원유수출/총수출 비중>

국가 연도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07	82.4%	41.3%	95.9%	94.5%	71.0%	62.3%
08	87.1%	43.1%	110.7%	94.4%	72.5%	64.9%
09	80.7%	35.5%	87.6%	90.6%	61.7%	56.8%
10	82.2%	35.2%	99.8%	92.2%	65.6%	56.9%
11	84.4%	44.2%	98.5%	93.5%	67.7%	67.5%

자료: IMF, OPEC.

<한국의 GCC 소속 국가들에 대한 무역 적자>

(단위: 억 달러)

국가 연도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00	- 83.8	- 27.1	- 20.9	- 24.7	- 15.7	- 1.4
01	- 67.8	- 24.6	- 23.5	- 20.7	- 21.6	- 0.8
02	- 62.9	- 19.4	- 20.2	- 20.5	- 17.9	- 0.9
03	- 78.6	- 35.5	- 27.8	- 29.0	- 22.2	- 2.0
04	- 100.9	- 47.0	- 34.2	- 34.1	- 23.2	- 2.1
05	- 140.1	- 72.9	- 50.8	- 55.2	- 34.0	- 1.9
06	- 175.7	- 100.3	- 62.3	- 74.6	- 47.8	- 2.2
07	- 171.4	- 89.5	- 72.9	- 74.4	- 32.7	- 1.2
08	- 285.3	- 135.0	- 124.7	- 113.8	- 48.1	- 2.1
09	- 158.8	- 43.3	- 70.8	- 72.5	- 35.9	- 0.4
10	- 222.6	- 66.8	- 114.4	- 98.0	- 34.3	- 3.2
11	- 300.1	- 74.9	- 202.8	- 155.3	- 44.6	- 4.3
12	- 228.0	- 58.7	- 189.7	- 122.9	- 30.9	- 3.2
누적 적자액	- 2,076.1	- 795.2	- 1,015.1	- 895.7	- 408.9	- 21.4

자료: KITA.

주: 2012년은 1~9월 기준.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02-2072-6242)